

# 비 육 우 사업 소개



원 용 택  
<대한사료기획부장>

## 머 리 트 말

이 글은 미국사료곡물협회와 미국농무성 해외 농업국(海外農業局)의 후원(後援)하에 1971년 10월 20일부터 1972년 10월 18일까지 대한사료공업 주식회사에서 시범적(示範的)으로 수행(遂行)한 비육우시험사업(肥育牛試驗事業)의 결과를 요약(要約)한 요지(要旨)이다. 처음계획부터 참여한 필자는 못사람으로부터 성공적이다, 실패적이다, 논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 나름대로의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술하여 앞으로 80년초에 국민소득이 1,000\$로 되었을 때 날로 증가하는 육류(肉類)의 수요에 대하여 공급책(供給策)을 사전에 대비가 절대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요사히 일기시작한 비육우사업에 착수한 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감히 이 글을 쓰니 실질적으로 이용할 것은 이용하시고 필요없는 것은 버려 건전한 사업발전을 축원하며 선배제위는 이론적 실리적인면에 잘못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했으면 한다.

## 1. Feed lot 사업(事業)의 의의(意義)

우리가 책에서 읽기만 하였던 비육우사육방법의 하나인 Feed lot 시험은 1971. 10. 18 멀리 미국의 Oklahoma 주 Tinker 공군기지에서 DC 8 수송용(輸送用) 제트기에 264두의 거세(去勢)된 송아지가 적재(積載)되었는데 이는 바로 미국 서부역사에 기록될 소의 최장거리(最長距離) 수송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이들 송아지는 약 12, 347km 을 비행하여 그 대부분이 향우 9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서 “비프스테이크”로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들 소의 수송목적은 아시아적 조건하(條件下)에서 현대적 육우사육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이 지역에 있어서의 우육공급능력과 「비프스테이크」 「불고기」 및 「스끼야끼」 재료로서 증가일로(增加一路)에 있는 소고기의 수요량(需要量) 사이에서 파생되는 간격을 메꾸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와 또한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가

능성 여부(如否)를 증명(證明)하기 위하여 설계(設計)된 시험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최초(最初)로 시도(試圖)되는 것이었으며 이를 시행(施行)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수 많은 문제점에 당면하였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책(方策)을 발견한 것은 가치있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사업을 적극 후원하고 지도하여 준 미국사료곡물협회(USFGC)는 사료용 곡물생산업자 종자생산업자 곡물수출업자, 철도수송업자, 농화학회사 농기계생산업자 및 미국의 기업농업 각 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것이다.

이 Feed lot 시범사업(示範事業)을 Oklahoma 주 출신 상원의원 Henry A. Bellmon 씨에 의하여 구상(構想)되었고 이 사업초기에는 이를 위하여 사적(私的)인 시간과 노력(努力)을 아끼지 않고 후원한테 대하여는 그의 노고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다. 의외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여러가지 법적인 난관을 무릅쓰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농수산부 김영진(金永鎭) 축산국장 및 직원 일동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대한사료 이한항(李漢垣) 회장과 김시호(金是皓)사장의 이해와 열성(熱誠)어린 후원이 없었더라면 이 사업은 수행(遂行)될 수 없었을 것이다.

California 주 Indian Wells 출신의 비육우 Feed lot 영양상담역(營養相談役)인 J.D. Aughtry 박사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감독책임은 지고 일 하였으며 Texas 주 Daugherty 출신의 Feed lot 상담역 Charles Gibson 씨는 소와 함께 비행기에 동승하여 이곳에 와 우리 직원과함께 일년간을 동고동락(同苦同樂)하여 우리에게 여러가지 좋은 산경험을 안겨주었다. Charles 씨 및 Richard Kershaw 는 대한사료의 이 Feed lot 의 시설 설계와 소를 준비하는데 각각 힘써 주었고 주한(駐韓) 미국대사관(美國大使館)의 Clancy V. Jean 농무관(農務官)과 미곡물협회 아시아 대표 Donald M. Taylor 와 서울지부장 George E. Wood 씨의 열성어린 후원과 지도는 누구보다도 더 빛났으며 이 사업이 끝난 오늘날도 계속 지원하고

있어 대한사료의 비육우사업이 존속(存續)하는 영원(永遠)히 잊지 못할 우인(友人)인 것이다.

대한사료의 Feed lot 사업은 여러면에서 중요성을 내포한 하나의 시도였다. 즉 미국의 비육용우(肥育用牛)를 아시아 지역에 한마리의 사고도 없이 공수한 것이 첫번째고 미국의 비육우가 그 지역외에서 사육된 것도 역시 첫번째였고 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한 미국식 설계로 비육우사(肥肉牛舍)가 건축(建築)된 것도 첫번째였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식 그대로의 완벽(完璧)한 미국식 사육기술을 적용한 것도 첫번째 케이스였다.

이 비육사업이 시행되어 오던 일년간 약 800명의 우리나라 축산인과 약 200명의 외국인 방문객(訪問客)이 비육사(肥育舍)의 설비와 경영관리면을 보러 奧地에 찾아와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어 고맙게 생각되었다.

## 2. 목적(目的)

우리가 비육우 사업을 실시한데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에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조건하에서 미국식 비육우 경영법과 비육기술의 적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검토였으며,

둘째, 어떤 비육우 품종(品種)이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가장 적합한 품종인가?

셋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미국식 비육방식으로 사육(飼育)한 우육(牛肉)의 시장성 검토(市場性 檢討)

넷째, 협소한 일정지역(一定地域)에서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성 문제

다섯째, 국내산(國內產) 소우사육(素牛飼育)에 앞서 기술습득(技術習得)등 조사 검토(調査 檢討)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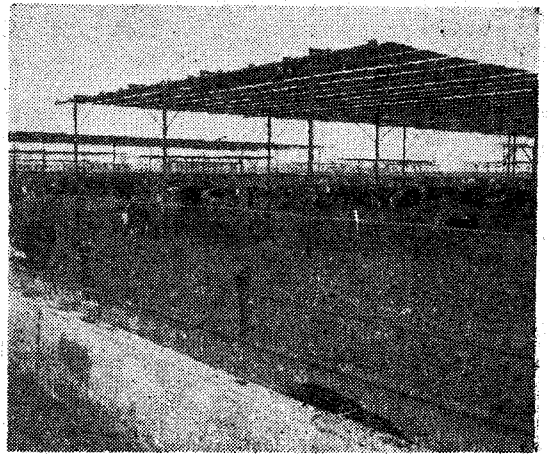
## 3. 연혁(沿革)

원래 이 비육우사업은 일본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나 이런 형태의 사업에 관한 정책관계(政策關係)로 일본정부가 이를 보류(保留)하였기 때

### 비육우 사업소개

문에 사업수행국(事業遂行國)을 한국으로 변경(變更)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일부로서 여기서 생산된 정육(精肉)을 일본에 시험판매(試驗販賣)하기로 결정지어졌다.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육우사육(肉牛飼育)은 사전(事前)에 미리 분석해보지 못한 계획이었다.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 직후(直後)부터 품질이 우수한 우육(牛肉)을 생산했고 소비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달리 오랫동안 송아지 생산두수(生産頭數)의 증식(增殖)이라든가 또는 도살전(屠殺前)에 비육시킨다든가 하는 면에서 발전가능성(發展可能性)이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한국의 국토면적은 98,420km<sup>2</sup> 인구 3,200만이다. 경지(耕地)는 전국토(全國土)의 23.5% 불과(不過)하며 잔여토지는 주로 산악(山岳)과 구릉지대(丘陵地帶)이다. 대부분의 경지는 도작(稻作)과 기타 식량생산에 이용하고 있고 사료곡물(飼料穀物)이나 조사료(粗飼料)의 생산량은 매우적다. 조사료의 생산부족은 육우생산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하겠다. 이러한 제반제한조건(諸般制限條件)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비육우사업을 추진(推進)한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충분한 잠재적 능력(潛在的 能力)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개념(事業概念)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승인된 후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제안이 미국, 일본, 및 한국의 수개사(數個社)로부터 신청되었다. 이 중에서 대한사료가 최적(最適)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고 종전부터 기업축산(企業畜産)을 행하고 있어서 정부의 추천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미국사료곡물협회는 미농무성(美農務省)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Feed lot 설비(設備)의 설계(設計) 배합사료설계(配合飼料設計) 운영계획안(運營計劃案)을 제공하기를 동의(同意)했으며 또한 사업기간중 전속 상담역(專屬相談役 Gibson)을 배치(配置)하고 사료가격의 85%을 대한사료에 상환(償還)하도록 동의하였다.



그 대신 대한사료 측에서는 USFGC 설계서에 따라 적합한 지역에 건축하는 일 경영관리 배합사료 설계 급여계획(給餌計劃) 시판(市販)에 관한 것은 USFGC의 추천에 따르기로 하였고 일본에 일정량의 우육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사업기간중에 방문객들에 시찰허용(視察許容) 시험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치장소는 Dr. Aughtry와 Kershaw 형제가 설정하였으며 Dr. Aughtry는 수입한 옥수수를 기본사료(基本飼料)로 하고 이에 따른 국내산 원료를 배합하여 가장 저렴한 사료배합율을 마련했다.

## 소우(素牛)의 조달(調達)

우리는 California 주 Brawley의 Kershaw and Sons 사와 소우(素牛)의 구입과 사전 순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정에는 약 275두의 소우 수송기 1대분을 인수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 Kershaw 사에서는 Oklahoma 주 Alabama 주 Florida 주 Texas 주 California 주 등의 소우시장(素牛市場)에서 500두의 송아지를 구입하여 약 1개월가량 순치시킨후 능력이 좋다고 인정되는 송아지를 선택하여 실제 출하두수는 264두이었고 전부 거세(去勢)한 것이었고 Holstein 중 66두 Brangus 중 64두 Okie 134두이었다.

비육우들은 비교시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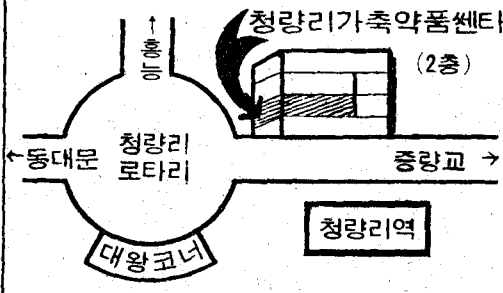


- 첨가제
- 예방약
- 치료약
- 백신
- 소독약

최신의 학술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한국육계회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58  
TEL. 96-8780

# 청량리가축약품센터



중별로 구분 선택되었으며 최고 198kg에서 최저(最低) 105kg이었다. 이번에 송아지를 구입함에 있어 우리가 경험한 큰 것중의 하나는 거래중일 어날 수 있는 소의 폐사손실, 불합격우문제(不合格牛問題), 치료의약품대의 지출, 사전순치 비용, 체중감량(體重減量)등의 제문제점에 있어 가격 결정 문제이었던. 고로 소우의 조달은 그 성질상 총조달우(總調達牛)의 가격은 일반 수입물품을 수입전에 매단위당(每單位當)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관례(慣例)와 같이 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장차 이런 거래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상기 세부항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대두된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정부로부터 주장되는 복잡성을 나타내는 보전상의 요구 조건들이었다. 이번일은 육성용우를 한국에 처음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정부의 견해차이(見解差異)를 사전에 조정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정액(正額)을 기하기 위하여 무리한 단시간내의 예방접종은 소우의 건강도를 약화시켰으며 따라서 미국내에서 폐사두수의 발생을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소우의 조달과 수출선적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우의 사전 건강조절 기간이다. 이것은 번식우와 달라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New Mexico와 Livingston에 있는 Kershaw 사육장에 집합시켜 이곳에서 1개월간 사육시켰다. 이 기간중에 소들은 한국도착후에 공급받을 사료에 익숙하도록 동일한 사료로 사육 훈치시켰다. 이 결과 송아지들은 한국과 미국간의 장거리수송에서 받은 비상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한마리의 희생도 없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1주일 이내에 완전회복 미국에서와 똑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